



봄이 오는구나

입춘(立春)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어르신이 입춘빙을 쓰고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설 명절 전북민심 어느 당에

올해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전북을 이끌 적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설 밥상머리에서 전북민심이 어느 당에 쏠릴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과 떡국 한 그릇을 나누며 이어갈 '수다' 속에 표심의 향배가 기울게 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등 신당 출현으로 한치 앞도 알기 어려운 시계제로 양상 속에 전개되는 모양새다. 기존 거론되는 출마군에서 새로운 인사의 가세는 물론, 선거구재조정 등 현안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 소속 새인물들이 화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당 새인물로는 이기동 예비후보(완산갑), 임윤상 예비후보(완산을), 김경희 예비후보(김제완주), 김정호

신당 출현 등 새 모양새 완산을 등 경쟁 치열 국민의당이 큰 변수 선거구 확정도 주목 예비후보(김제완주) 등이 회자되고 있다. 지역 정가는 이들중 과연 몇명이 국회에 입성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 남원순창, 완산을 익산갑을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구도 관심이다. 특히 완산을은 가장 접전지역으로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상황이다. 효자, 서신동 등 지역세가 확대, 유권자의 열망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등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아직도 개발 발전에 북마르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완산을은 지역발전 적임자 여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다자간 정치적 상황이 요동칠 전망이다. 반면에 완산갑은 현역인 김윤덕 의원의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광수 전 도의회 의장과 유종근 전 전북지사 재외하곤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듯 한 모습이다. 다만 완산갑은 새로운 독자세력들의 전라공천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산갑과 을도 복잡하다. 익산갑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권을 놓고 이춘석 현 의원과 한병도 예비후보의 경선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이 지역 역시 국민의당이 또 다른 변수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배승철, 이한수 예비후보를 비롯해 고상진 전 보좌관 등 흥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익산을도 조배숙, 김삼기, 김연근 예비후보 등 누구도 제외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이밖에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선거구 확정도 주목된다. 11개 선거구 중 10개로 재조정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완주는 진안무주장수와 김제는 부안, 정읍은 고창, 남원순창은 임실과 합쳐질 가능성이 높아 후보들간 지역구를 놓고 막판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설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을 유지할 것인가, 인물이냐 당이냐, 현역위원 물갈이 내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정읍·고창·부안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도, 11억5400만원 규모 설 명절 전에 세계·용자 등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

지난 달 대설·한파 등으로 인한 전북도내 피해가 잠정적으로 약 7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피해가 심한 3개 시·군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설 명절전에 우선 지원된다. 3일 전북도는 지난 달 대설·강풍·폭랑 등으로 받은 피해가 큰 고창군, 정읍시, 부안군의 재난피해주민들에게 11억5,4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집수가 끝나고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 농기계 수리비 등을 납기유예나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예년에 비해 10월 이상 앞당겨 지원하는 것으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기집행된다.

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계·용자 등 간접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는 3개 시·군 주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확정을 거치지 않고 지원받음으로써 설 명절 전에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을 경우 세대주의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의 경우 500만원, 부상의 경우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지원된다. 주택피해의 경우 전과·유실에 대해서는 900만원, 반과 450만원, 침수 100만원 지원되고 주택피해자의 경우 1인당 매일 7,000원이 구호비로 추가 지급돼 전과, 반과, 침수의 경우 각각 60일, 30일, 7일 지급된다. 또한 주생계수단(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이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지원도 지원된다.

도가 접수한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피해는 1,323건에 대해 총 70억5,000만원 수준으로 주택 4건, 비닐하우스 990건(54.2ha), 축사 30건(1.4ha),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해가 큰 지역은 고창이 주택 1건, 비닐하우스 781건 등을 포함해 피해액은 45억원정도이고 정읍은 주택 1건 비닐하우스 65건 등 약 12억5,000만원, 부안이 주택 1건, 비닐하우스 98건 등 6억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는 고창군에 8억5,600만원, 정읍시에 1억9,800만원, 부안군에 1억원을 설 명절전에 우선 지원하고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 납기유예, 지방세 감면, 전기료 등 공과금 감면, 용자금 지원등을 피해주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피해신고는 이달 4일까지 접수하고 5일 중앙재난피해합동 조사반의 정밀조사 완료 후, 오는 15일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 수립 심의 및 확정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 메일 INDEX

2면 전주-김천 국가철도영구측 계획

4면 도내 노후건축물 안전대책 시급

전북과 경북이 영호남 동서통합 SOC로 공동 추진한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 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됐다. 전북도는 윤 상반기 중 고시될 예정이다.

전북지역 건축물 약 2등 중 1등은 지어진지 30년 넘는 노후 건축물로 드러났다. 전체 건축물의 42%가 이에 해당했다.

군민郡民 중심 中心의 민주의회民主議會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2016 새해 福
만민이 바라는 시기로
http://assem.muju.go.kr